

# 조주완 “앞으로 ‘질서·규칙 없는 치열한 경쟁’이 표준될 것”

## LG전자 ‘CEO 편 토크’

내년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 전략 방향 공유

세계경제, 지정학 시대로 변화  
中 성장에 구조적 경쟁력 확보  
생산성·업무효율성 전략 ‘재창조’

“앞으로는 ‘질서와 규칙이 없는 세상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 표준(노멀)이 될 것이다.”

조주완 LG전자 CEO(최고경영자)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올해 마지막 ‘CEO 편 토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토크는 조 사장이 취임 후 구성원들과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조 CEO는 이날 ‘지속성장을 위한 리인벤트(REINVENT, 재창조), 구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계돌파’를 주제로 내년 회사가 마주할 글로벌 경영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사업 전략 방향을 상세히 공유했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CEO F.U.N. Talk’를 열고 구성원들에게 2025년 회사가 마주할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사업전략 방향을 공유하고 있다. /LG전자

이번 주제는 지속성장을 위해 한계를 돌파하려면, 시장 변화와 경쟁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재창조를 정교하게 이뤄내야 한다는 의미다.

### ◆글로벌 경영환경 대응 전략 공유

조주완 CEO는 대내외 정책 변화에 따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선제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중국기업의 경쟁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회사와 구성원들이 마주할 도전과 성장의 기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불확실성의 확대 ▲즉각적인 위협 ▲질적 성장과 수익구조 등 3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조 CEO는 불확실성에 대해 “세계경제는 지정학 시대에서 지정학(Geo-economic)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며 “그

동안엔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질서와 규칙이 존재했지만, 앞으로는 ‘질서와 규칙이 없는 세상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 표준(노멀)”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최근 내외부 전문가들과 협력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에 대응하는 ‘플레이북’을 준비 중이다.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해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 ◆중기업 적극 대응 “원가 경쟁력 확보 할 것”

조주완 CEO는 중국 기업의 성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 제품·원가·오퍼레이션 측면에서 구조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을 더욱 정교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제품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혁신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QCD(품질·비용·납기) 경쟁력을 강화해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원가 경쟁력에 대해선 도전적인 목

표를 수립해 한계돌파를 추진하고, 오퍼레이션 측면에선 현지화 전략에 맞춰 연구개발(R&D)에 속도를 낸다. 필요에 따라 외부 업체와 협력하는 사업방식을 검토하는 등 유연한 대응전략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조 CEO는 치열해진 경쟁, 세계적 인플레이션, 글로벌 공급망 이슈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을 설명하며 질적 성장과 건전한 수익 구조를 위해선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고민과 치열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을 강화할 전략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하며, 모두가 관성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재창조’를 이뤄내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조 사장은 지난 3년간 소회를 밝히며 “최악에 대비하고, 최선을 지향한다”는 자세를 갖자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에 철저히 준비하고 차분하게 대응한다면 우리는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담대한 낙관주의자’의 자세를 강조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한은 “팬데믹 이후 저가상품 가격 16.4% 올라” 전국 노동조합 조합원 수 ‘273만7000명’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가공식품 81개 품목 대상으로 조사  
고가상품 가격 5.6% 상승에 그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저렴한 상품의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면서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렴한 상품의 경우 마진이 작아 수입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고스란히 전가된 영향이다.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중·저가 상품의 가격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팬데믹 이후 칩플레이션(Cheapflation)과 인플레이션 불평등’ BOK이슈노트를 내놨다. 이번 보고서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가공식품에 속하는 81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 ◆팬데믹 이후, 저가상품 16.4% ↑

조강철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동향팀 차장은 “우리나라도 팬데믹 이후 저가 상품의 가격상승률이 더욱 높게 나타나는 칩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 조사기간 중 저가상품의 가격은 16.4% 상승한 반면 고가상품의 가격은 5.6%에 그쳤다.

예컨대 라면의 경우 일반 라면과 자연 식재료만 사용한 라면 등으로 가격차가 발생한다. 팬데믹 이후 저가 상품인 일반 라면의 값이 자연식재료만 사용한 라면보다 더 올랐다는 설명이다.

저가상품의 마진이 작아 팬데믹 이후 오른 원자재 비용이 고스란히 더해진 영향이다.

조 차장은 “칩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급등기간에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 기간에는 모든 상품의 가격이 오르지만, 특히 저렴한 상품의 가격이 다른 상품의 가격보다 높게 상승했다”고 말했다.

### ◆물가상승 체감, 저소득층이 더 커

특히 칩플레이션은 가계 소득계층간 물가의 격차를 확대시켜 인플레이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예컨대 라면의 경우 저소득층은 일반 라면을, 고소득층은 자연식재료만 사용

한 라면을 먹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과 고소득층이 체감하는 물가는 다를 수 있다.

실제로 2019년 4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 하위 20%의 저소득층 누적 실질물가상승률은 13%로 집계됐다. 상위 20% 고소득층이 11.7%인 것과 비교하면 1.3%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저가상품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아 물가 상승분이 많이 반영된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 저가상품에 대한 지출이 적어 물가 상승분이 적게 반영됐다.

이날 조 차장은 저소득층을 위해서라도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안정기조를 유지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급등시기에 칩플레이션이 나타난 점을 감안할 때 취약계층이 더 큰 인플레이션 비용을 감내한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말했다.

또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기에는 중·저가 상품의 가격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유리 기자 yul115@

고용부 ‘지난해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전년 대비 0.5% ↑... 조직률 0.1%p ↓

지난해 전국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273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2023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2년 조합원 수 272만2000명에서 1만5000명 증가한 273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

에서 13.0%로 0.1%포인트(p) 감소했다. 이는 조직 대상 근로자 수가 32만명(1.5%) 증가하면서 조직률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116만162명 ▲민주노총 108만6618명 ▲미가맹 47만9758명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비 한국노총은 3만8343명이 증가했지만, 민주노총은 1만318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 현대차, GM·웨이모 등과 경쟁력 강화 모색

### 》1면 ‘中 BYD 세계 질주...’서 계속

정희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현대차와 GM은 글로벌 주요 시장 및 차량 세그먼트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회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혁신적 기술을 바탕으로 효율성을 향상시켜 고객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대차는 자율주행 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달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현재 완전자율주행차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웨이모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LA), 피닉스 등 주요 도시에서 시범 차량을 운행 중이다. 현대차는 웨이모의 6세대 완전자율주행 기술인 ‘웨이모 드라이버’를 아이오닉5에 적용해 로보택시 서비스에 투입한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현대차는 세계 1위 자동차 업체인 토요타그룹과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희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

달 24일 일본 도요타에서 열린 ‘2024 월드랠리챔피언십(WRC)’에서 “수소를 얘기해서 같이 좀 잘 협력하려고 한다”며 토요타와 협력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혼다와 닛산이 합병으로 얻을 시너지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닛산은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고 양사의 미래 사업 성장성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혼다와 닛산의 합병 목적은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기술 공유, 배터리 공급에 대한 협력을 중심으로 두고 있다”면서도 “이들 기업의 합병 시너지는 불투명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어 “혼다는 내년 상반기 기준 이륜차 이익 비중이 44%에 달하고 하이브리드 기술이 토요타에 필적할 만큼 강하지만 대형 하이브리드 출시 계획 없는 것이 단점이다”며 “닛산은 전기차 가장 먼저 상용화했지만 짧은 주행거리와 기술발전의 미비로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

## “무탄소 에너지 확대되면 59兆 파급효과”

(2033년까지)

산업부 ‘에너지기술개발계획’ 확정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무탄소에너지 기술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차세대 원자력,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등 주요 무탄소에너지의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33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원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수소 등 분야에 걸쳐 무탄소에너지 사용이 확대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59조 원에 달할

산업부는 1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투자전략을 담은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는 에너지 공급-전달체계-수요 부문의 전주기 기술개발과 R&D 생태계 조성을 내용으로 한 4대 전략 및 14대 과제가 포함됐다.

우선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 무탄소에너지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차세대 탠덤전지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원전 활용도 증가와 재생에너지의 체계적인 확대 등도 추진한다.

전력사용 확대가 늘어남에 따라 유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망도 확보할 방침이다.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해 송전제약 완화를 위한 고압직류송전기술(HVDC) 대용량화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전력계통 감시·해석기술 고도화, AC/DC 혼용 배전망, 에너지저장 시스템 다각화 등으로 계통의 강건성과 유연성을 제고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